

홍명보 감독, 원팀 리더십·성과·경험 등 최적임자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선임 이유 8가지 설명 “외국인 감독, 단시간에 선수 파악·축구 철학 입히기 어려워”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의 신인 사령탑으로 홍명보 K리그1 울산 HD 감독을 내정한 이유로 경기 철학, 리더십 등 8개 항목을 들면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취재진 대상 브리핑에서 선수단 장악 능력 등 홍 감독의 장점과 현재 협회가 처한 상황 등을 합쳐 총 8개의 선임 사유를 설명했다.

이 이사가 언급한 항목은 ▲빌드업 등 전술적 측면 ▲원팀을 만드는 리더십 ▲연령별 대표팀과 연속성 ▲감독으로서 성과 ▲현재 촉박한 대표팀 일정 ▲대표팀 지도 경험 ▲외국 지도자의 철학을 입힐 시간적 여유의 부족 ▲외국 지도자의 국내 체류 문제다.

지난 2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뒤, 5개월가량 정식 사령탑 없이 A매치를 치른 한국 축구는 전란 비로소 수장을 찾았다. 홍 감독이다.

이 이사가 '삼고초려' 하듯 간곡히 설득한 끝에 안강했던 거칠 의사를 돌린 홍 감독은 공식적으로 2027년 1~2월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까지 2년 6개월가량 임기를 받았다.

이 이사는 '측면 뒷공간'의 효율적 공략 등을 언급하며 울산에서 홍 감독이 보여준 전략이 대표팀에도 적용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데이터로 기회 창출, 빌드업, 압박 강도 모두 (홍 감독의 팀이) 1위였다. 활동량은 10위였으나 효과적으로 경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여러분은 울산의 축구를 보셨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는 홍 감독을 '원팀 정신'을 만드는 데 탁월한 지도자라 표현하며 “연령별 대표팀과 연속성이 중요해 국내 지도자를 선임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울산은 K리그에서도 특히 개성 강한 스타급 선수들이 즐비한 구단이지만 홍 감독 특유의 카리스마 덕에 선수단 내분을 비롯한 각종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

이 이사는 외국 지도자와 비교해 울산에서 K리그 2연패 등을 이룬 홍 감독의 성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감독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지도자로서 실패한 경험도 한국 축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란 평가를 받았다.

세계 축구의 흐름을 아는 외국인 지도자를 위한 팬들의 열망을 인지한 축구협회는 100명 안팎의 외국인 후보를 검토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지도력이 입증된 후보는 비쌌고 몸값을 감당할 만한 인물은 경력 등이 성에 차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 이사는 지난 2일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엿 등 외국인 감독과 면담하러 유럽 출장을 다녀왔지만 홍 감독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 이사는 “9월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이 시작하는 시점에 외국 지도자들이 한국 대표 선수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봤다”며 “그들의 철학을 입히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들과 비교해서 홍 감독이 K리그에서 보여준 안정적 빌드업과 공격 전개가 선수들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는 “이전에 불거진 재택근무 논란이 재현될 위험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11시에 홍 감독의 자택 앞에서 만나 설득했다는 이 이사는 “날 만나줄까 고민, 두려움이 있었다”며 “왜 한국 축구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감독을 선임하는 데까지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이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에도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계약 조건을 놓고는 “단기간 결과로 평가하기보다 A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술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 출신 코치 2명을 둔다는 조건을 홍 감독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같은 계약 조건을 받아들인 홍 감독은 2020년 12월부터 이임받은 울산을 떠나게 됐다.



/연합뉴스

엄지성 빠진 광주FC, 골 결정력 부족 강원에 무득점 패배

K리그1 21라운드 0-2

전남 K리그2 10경기 무패 행진

엄지성을 떠난 보낸 광주FC가 골 결정력 고민에 빠졌다.

광주가 지난 7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 FC와의 K리그1 2024 2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광주는 11개의 슈팅과 5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하면서 강원(7슈팅·2유효슈팅)에 앞섰지만 상대 골키퍼 이광연의 호수비가 이어지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전반 10분 김한길에게 공을 넘겨받은 문민서가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로 슈팅을 날렸다. 그러나 매섭게 날아간 공이 몸을 날린 강원 골키퍼 이광연에게 막혔다.

전반 13분 중원에서 공을 뺏기면서 역습 위기를

맞았던 광주는 양민혁이 슈팅이 골대를 지나가면서 한숨을 돌린 뒤 공세를 이어갔다.

정지훈과 베카의 헤더가 빛나면서 아쉬움을 삼긴 광주는 전반 33분 광주 진영에서 공을 뺏긴 뒤 정한민에게 슈팅까지 허용했다. 골키퍼 김경민이 방향을 잃고 몸을 날렸지만 손끝을 지나친 공이 광주 골대 오른쪽을 뚫었다.

광주는 후반 36분 김진호의 자책골로 0-2패배를 기록했다.

가브리엘이 3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분전했지만 모두 이광연에 막히면서 땅을 쳤다.

후반 20분 왼쪽에서 왼발로 때린 공이 골키퍼 품에 안겼고, 후반 30분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날린 기습 슈팅은 골키퍼 손에 걸렸다. 후반 추가 시간에 헤더를 시도한 가브리엘, 바운드 된 공이 이번에도 골키퍼를 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K리그2의 전남드래곤즈는 승리로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전남은 지난 7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안산그리너스와의 21라운드 방문 경기에서 멀티골을 장식한 하남을 앞세워 2-1 승리를 기록했다.

전반 4분 만에 하남의 골이 터졌다.

중원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잡은 임찬율이 오른쪽에서 세도하던 하남에게 공을 넘겨줬다. 하남이 그대로 왼발로 슈팅을 시도하면서 안산 골망을 흔들었다.

하남은 후반 33분에는 박태용의 도움으로 멀티골을 기록했다. 하남의 패스를 받은 박태용이 상대에 막혀 넘어지면서 슈팅을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흐른 공을 잡은 하남이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다시 한번 골세리머니를 했다.

전남은 후반 41분 안산 최한솔에게 골을 내줬지만 남은 시간을 잘 지키면서 10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배드민턴 선수단, 전국대회서 선전

광주·전남 배드민턴 선수단이 '2024 KB금융 전국실업대학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서 선전했다.

최근 충북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광주은행 박세웅은 일반부 혼합복식에서 성승연(전북은행)과 팀을 이뤄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인천국제공항(박세웅-성승연)에 0-2로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은행 조송현은 고희주(경광장)와 함께 나선 일반부 혼합복식에서, 광주는 행정실업과 조송현은 남자일반부 복식에서 각각 동메달을 합작했다.

여자일반부 단식에서는 화순군청 유아연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유아연은 8강에서 김성민(김천시청)에 2-0으로 승리한 뒤 4강에서 김주은(김천시청)을 2-0으로 꺾었다. 결승에서 심유진(인천국제공항)을 만난 유아연은 0-2로 패하며 2위를 기록했다.



일반부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박세웅·성승연 선수.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상반기 승률·연승·상금 1위...올해도 바둑은 '신진서 천하'

박정환 다승 1위

한국 바둑의 절대 강자 신진서(24·사진) 9단이 상반기 승률과 연승, 상금 부문 1위를 휩쓸었다.

랭킹 2위 박정환 9단은 다승 부문에서 신진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한국기원은 8일 상반기 결산 결과 신진서가 40승 6패, 승률 86.96%를 기록해 승률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신진서는 상반기 두 차례나 11연승을 달리며 3년 연속 연승왕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박정환은 44승 13패로 다승 1위에 올랐다.

박정환은 지난 3월 제2기 5육7 관절타이밍 한국기원 선수권전에서 우승하며 23개월 만에 무관



탈출에도 성공했다.

상금 순위에서는 신진서가 상반기에만 8억3900만원을 벌어들이면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우승 상금 3억원인 LG배 정상에 오르고 국가대

항전인 농심신라배에서는 '끝내기 6연승'으로 한국의 역전 우승을 견인한 신진서는 2억7000여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국내 기전에서도 맥심커피배에서 우승했고 KB 바둑리그, 중국 갑조리그 등에서 활약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억8000만 원이나 더 벌었다.

상금 랭킹 2위인 박정환은 4억4300만원, 3위 변상일 9단은 4억5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한국기원 사상 처음으로 랭킹 톱10 모두 1억원을 돌파했다.

여가기사 중에서는 김은지 9단이 33승 14패를 기록하며 전체 다승 5위로 유일하게 톱10에 자리했다. 오유진 9단은 26승 7패, 78.79%로 전체 승률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가기사 상금 1위는 2억7500만원의 최정 9단이다.

/연합뉴스

박종엽 전남탁구협회 이사, 파리올림픽 심판 선정

박종엽(사진) 전남탁구협회 전무이사가 파리올림픽에 심판으로 발탁됐다.

박종엽 전무는 2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제33회 파리 하계 올림픽'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탁구 종목 심판으로 참가한다. 이번 올림픽 탁구 종목은 오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창평초-담양여중-경신여고에서 탁구 선수로 활동한 그는 2010년 국제심판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2013년 제25회 러시아 카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 단체전 결승전 주심을 비롯해 14년 동안 20여개 대회에서 심판을 맡았다.

뛰어난 판단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박종엽 전무는 심판으로 파리 올림픽에 간다.

박 전무는 "올림픽에 심판으로 참여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공정하고 경기 운영과 세심한 판정으로



한국 탁구의 위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Romantic〉

일시 : 2024-07-18(목) 11:00,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